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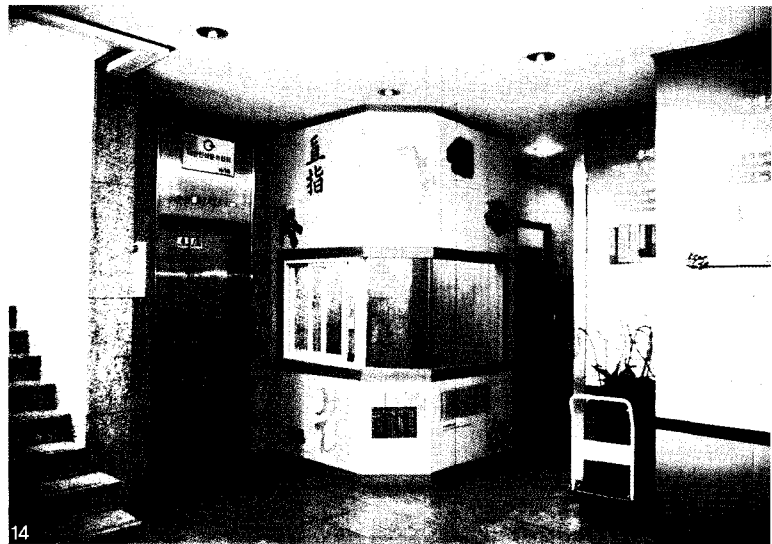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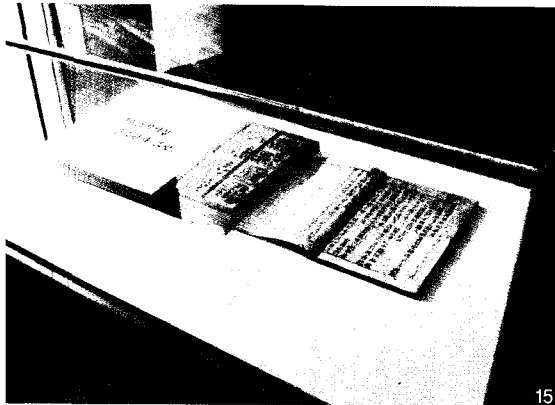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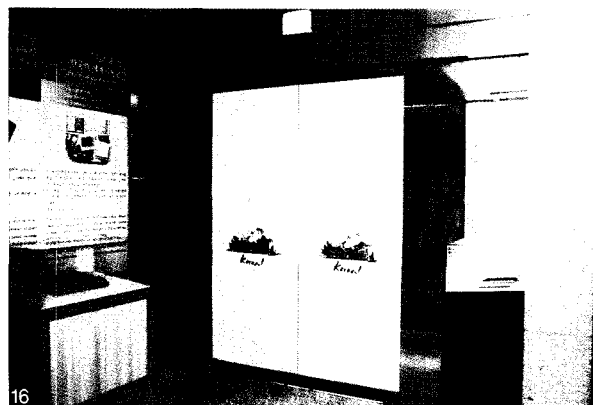
13



14



15



16

- 10. 인협 유창준전무가 기자들에게 리뉴얼된 인쇄 문화역사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11. 인쇄문화회관의 리뉴얼과 인쇄문화역사관의 이전 개관식을 가행하는 김남수 회장과 회장단, 분과위원장 일동
- 12. 이충원 인쇄연합회회장, 인협 홍우동 명예회장, 인협 민재기, 하철중 전회장이 테이프커팅식을 가행하고 있다.
- 13-14. 1층로비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국의 세계기록 유산에 대한 소개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직지와 월인천강지곡이 형상화된 1층로비
- 15. 1층 출입구에 자리잡은 우리나라 최고(最古) 금속활자 '직지'
- 16. 1층로비 자동문을 한국의 상징물로 형상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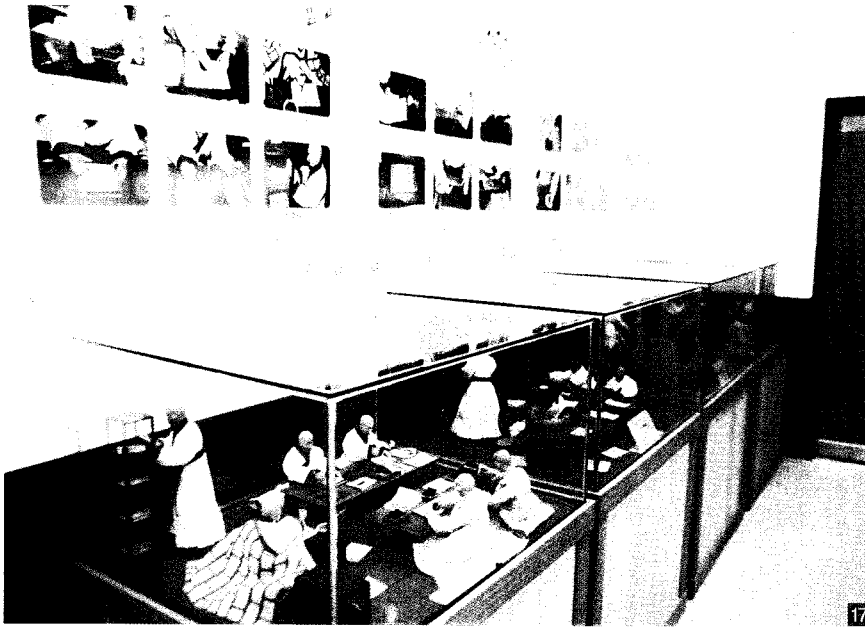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인쇄문화회관

〈지상1층〉

우리나라 고인쇄문화의 빛나는 유산으로 최고의 상징성을 가지는 최고의 금속활자인 직지심체요절과 목판활자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회관 출입구 초입에 배치해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주고 있다.

로비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인쇄 및 출판물이 순서대로 벽면을 사진벽화형식으로 장식하고 있다. 지난 1997년 처음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서울대 규장각 소장)과 훈민정음 해례본(간송 미술관 소장)을 비롯하여 불조직지심체요절 하권(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2001년 등재),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한국국가기록원 외 여러 정부기관 부처 및 관련 단체, 2011년 등재), 일성록(서울대 규장각 소장, 2011년 등재) 등이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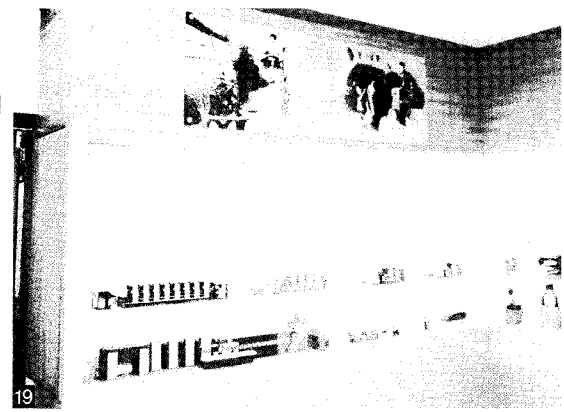
한쪽 부스에는 20세기를 풍미했던 청타활자 4,000여자로 구성된 조형물인 한자로 '직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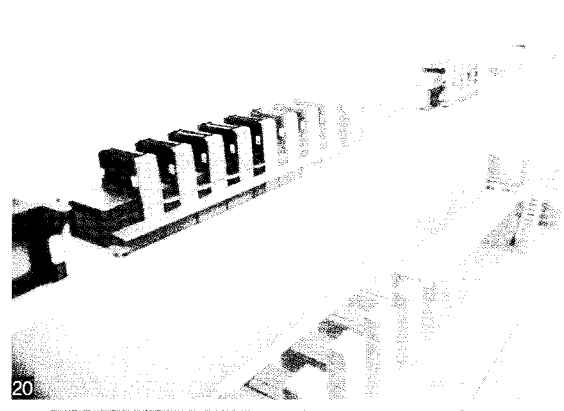
17



18



19



20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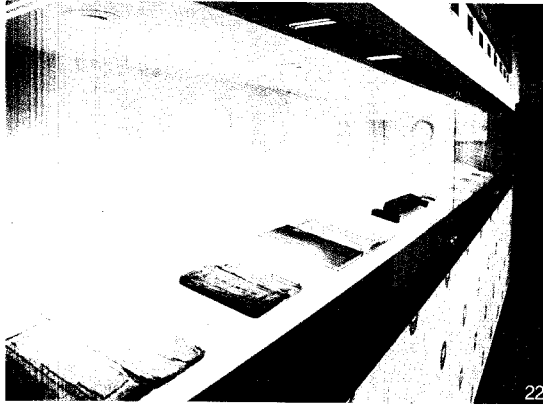
17. 직지제작 디오라마와 사진설명 18. 리뉴얼된 인쇄문화교육관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19. 인쇄기 및 제책기 모형 20. 최신 인쇄기의 모형도 설치되어있다. 21. 목활자 제작사진

〈지하 1층〉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역대 우리나라의 목판활자 및 금속활자가 연대순으로 고증을 거쳐 복원되어 벽면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이를 설명하는 목판 및 금속활자의 연대표는 방문객들에게 우리나라의 활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로비에는 회맹록을 비롯하여 각종 고활자들을 사용해 제작된 고서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옛날 종이 제조 방법, 세계 인쇄연대표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림 등 시원한 비주얼로 소개되어 있다. 목활자를 제작하던 도구류도 실물로 전시되어 있다.

인쇄문화교육관은 기존의 평면적인 교육에서 업그레이드되어, 직지 제작 디오라마와 함께 대형사진이 함께 부착되어 관람객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른 부스에는 13종에 달하는 옛 인쇄기와 제책기, 현대의 최신 인쇄기들이 정교한 모형으로 전시되어 교육관을 찾으면서 인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이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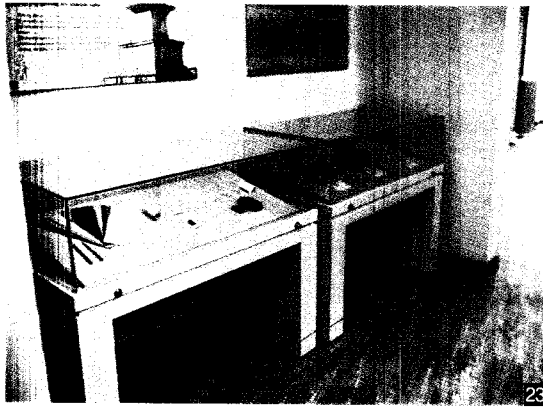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직지체험 코너를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활자 및 인쇄문화를 비주얼 위주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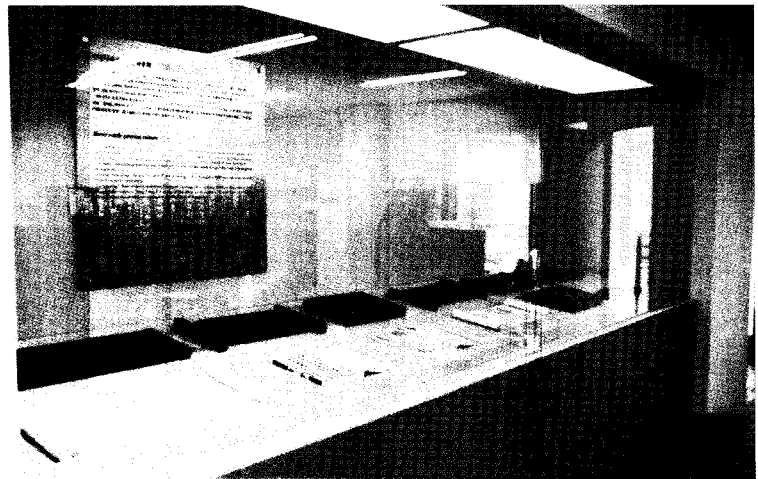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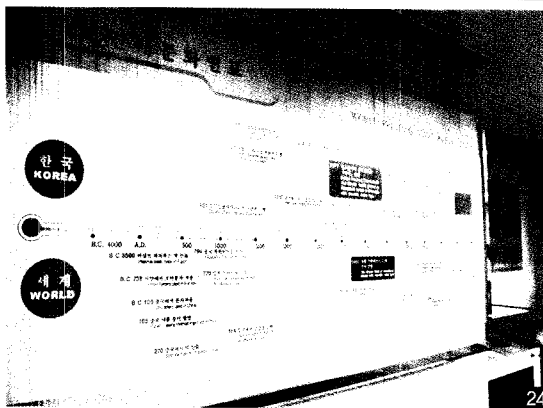
25



23



26



24

22. 회장 집무실에 전시된 고서들 23. 옛 모습을 재현한 벼루와 먹등이 전시된 5층 공간
24. 5층 입구를 장식한 세계 인쇄문화연표 25. 새단장을 마친 회장실
26. 5층에 전시된 훈민정음을 비롯한 고서와 목판들

〈5층〉

단순한 사무공간을 벗어나 사무실의 전면에 고서들과 그것을 인쇄한 동판을 함께 배치했으며 조선시대 선비들의 필기도구인 붓과 벼루도 진열되어 있다.

회장 집무실에는 바가지활자 포활자로 제작된 고서와 우리나라 고인쇄문화를 대표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직지심체요절 등을 진열하였다.

또한, 인쇄문화협회에 대한 설명과 세계인쇄연표를 아름답게 꾸며 벽면을 마감하였다.

5층을 찾는 방문객들이 반드시 들르기 마련인 계단과 복도에는 인협이 개최하거나 참여한 주요 행사를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반도체나 붉은 악마와 함께 직지심체요절을 형상화하여 단순한 환경미화뿐만 아니라 격조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사무공간의 전면에는 서가를 설치하고 2000여권에 이르는 서적을 사회, 인문, 과학분야로 분류해 비치하여 인쇄문화회관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